분산염료 시장성장 거품이었나…

생산 20.2%증가 불구 금액 6.1%증가 그쳐 … Dystar 침투 본격화

물량면에서 20%이상 높은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분산염료시장이 금액면에서는 한자리수 성장에 그치는 등 거품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96년들어 Hoechst와 Bayer의 합작기업인 Dystar가 메머드식 국내 판매전략을 강화함에 따라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95년 분산염료 생산은 94년 1만2420톤대비 20.2% 증가한 1만4930톤으로 당초 예상치보다 10%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산염료 수급현황

(단위: M/T, %)

구 분		1994	1995	증감률
공	생 산	12,420	14,930	20.2
급	수 입	8,305	9,367	12.8
	계	20,725	24,297	17.2
수	내 수	18,388	20,526	11.6
요	수 출	2,337	3,771	61.6
	계	20,725	24,297	17.2

분산염료 생산현황(1995)

(단위 : M/T, %)

구 분	수 량	구 성 비
LG화학	4,600	30.8
휘우산업	2,417	16.2
동양화학	2,001	13.4
경인양행	1,612	10.8
대영산업	1,600	10.7
이화산업	1,210	8.1
대도물산	1,200	8.0
경인합성	290	1.9
합 계	14,930	100.0

수출은 3770톤으로 94년 2340톤에 비해 무려 61.6% 증가했으며, 수입은 9367톤으로 94년대비 12.8% 증가하는 등 생산, 수출·입 모두 큰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는 반응성염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염료가 95년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과 비교하면 뚜렷한 호조국면으로 생산기준 93년 16.4%, 94년 40.3% 증가에 이어 큰 폭의 신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원인은 폴리에스터섬유 시장의 호황과 소비자의 고급화패턴이 점차 확산되면서 수요증가를 가져왔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분산염료 시장은 물량증가와는 달리 매출액면에서 보면, 95년 1400억원 정도로 94년 1320억원 대비 불과 6.1% 정도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도 전체물량 증가는 60%를 넘어섰으나 금액면에서는 34%에 그쳐 가격구조상의 어려움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현상은 무엇보다 폴리에스터섬유시장을 겨냥한 신증설이 대부분 저가 액상염료에 해당한데다 95년10월 Dystar가 국내 Dystar Korea를 거점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가격을 최소 10%에서 최고 40%까지 인하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Dystar제품은 중국제품과는 달리 물성면에서 국산제품과 비교하여 우위를 점하고 있어 가격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ystar는 중국에 2000톤, 인도네시아에 6000톤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4000톤을 증설, 일본과 한국을 상대로 본격적인 시장공략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국내 시장변화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욱이 부산·인천 등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건설, Offer에서 Stock판매위주로 전환한다는 공격적인 판매전략을 조기에 가시화할 것으로 알려져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가격도 국산은 액상이 Kg당 3000~4000원, 파우더가 8000~1만원대에 거래되고 있으나 수입제품은 파우더가 5000~7000원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Blue79번은 40%까지 다운된 것으로 조사됐다.

96년 국내 분산염료 시장은 Dystar의 시장전략과 함께 2/4분기 이후 바닥세를 벗어나려는 반등심리와 의류시장의 회복, 증설에 따른 수급변화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95년 생산실적을 보면, LG화학이 4600톤으로 전체의 30.8%를 차지했으며 휘우산업 2417톤 16.2%, 동양화학 2001톤 13.4%, 경인양행 1612톤 10.8%, 대영산업 1600톤 10.7%, 이화산업 1210톤 8.1%, 대도물산 1200톤 8.0%, 경인합성 290톤 1.9%로 나타났다.

<화학저널 1996/3/4>